

강진·장흥 통합 목소리 높다

강진군민 “경제 시너지효과 기대...긍정적”

장흥군수 보선 일부 후보자도 “찬성” 피력

강진 군민들이 장흥군과의 통합에 긍정적이라는 여론 조사가 발표돼 통합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진의 한 지역신문사가 최근 강진군민 950명을 대상으로 장흥군과의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30.2%로 나타났다. 강진읍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3%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병영, 읍전, 군동 등 장흥과 생활권이 북부지역 주민들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60.9%, 30~40대의 경우 70.2% 등 젊은 층들이 통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두 지역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양 지역간 통합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장흥지역에서도 낙후를 벗기 위해서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고 장흥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자가 통합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 향후 어떤 형태로든 통합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양 지역간 통합이 실제로 성사되기 위해서 단체장이나 의회의 결단이 필요하고 반대 계층의 거부감 극복이라는 난제가 얽혀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고흥 물김 출하

고흥군 금산, 도화, 풍양면 일대에서 물김 출하가 한창이다. 다도해 청정해역에서 채취된 이곳 물김은 맛은 물론 윤기가 뛰어나 주로 김밥용으로 팔린다. 수매가격은 60kg 한포대에 5만원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올랐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나무문화 체험장 ‘우드랜드’ 조성

장흥 억불산 편백나무숲 13만5천㎡ 부지...내년 상반기 개관

나무를 이용한 각종 교육, 전시, 레저기능을 합친 문화체험공간인 장흥 ‘억불산 우드랜드’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장흥군은 장흥읍 우목리 억불산 편백나무 숲 13만4천832㎡ 부지에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나무문화체험장을 만드는 ‘우드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입로와 건축물 부지 조성 등 기

반시설 정비를 끝마쳤으며 올 연말까지 우드랜드 부지 안에 이전할 한옥 해체목 4동에 대한 방부재 처리작업과 전시설계 공모, 위탁관리인 선정 기준도 마무리된다.

‘우드랜드’에는 책상이나 책장, 의자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목재 이용 체험실과 가족단위 휴게시설, 나무 전시관이 들어선다.

특히 통나무로 집을 짓는 방법을

교육하는 한옥학교도 설립돼 관련 전문 기능인력 양성에 나선다.

또 나무전시관에서는 미래의 목조주택,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용품 등 다양한 목재활용 제품들이 선보인다.

장흥군은 우드랜드 개관이 자연을 활용한 건강휴양촌으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신생아 건보료 3만원 지원

강진군 출산장려 확대

강진군이 출산 장려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내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 이상 신생아에게 5년간 매달 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현재 5만원 선인 출산용품 지원 비용을 내년 상반기 중에 10만원으로 늘리고 임신부 초음파 검진 의료비 지원도 2회 4만원에서 3회 6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출산준비금과 신생아 양육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강진군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제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농업박물관 6일부터 ‘전통 메주 만들기’ 체험

22일 ‘동지죽 쑤어먹기’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이 오는 6일부터 3일간 가족단위 관람객과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통 메주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측이 메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를 준비

하고 메주 만들기 가능 보유자 3명을 초청, 현장 시연이 실시된다.

또 참가자들은 가마솥에 불을 지펴 콩을 삶고, 삶아진 콩을 꺼내 절구에 넣어 찧은 다음, 메주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밖에 메주를 소금물 항아리에 넣어 간장이나 된장이 만들어 지는

과정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메주 만들기를 통해서 전통식품의 유래와 장류 제조과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농업박물관은 오는 22일 모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동지죽 쑤어먹기 체험행사’를 연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농협 나주시지부 어려운 이웃에 쌀 전달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지부장 나승운)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시지부는 지난달 29일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무료경로식당 11개소, 지역아동센터 21개소 등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쌀 175가마(20kg)를 전달했다. <사진>

나주시지부는 가정의 달인 지난 5월에도 사랑의 쌀 100



가마를 전달한 바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담양군 FTA 대응 우수

담양군이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담양군은 농촌진흥청이 최근 실시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상황 평가에서 FTA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4억 원을 받았다.

군은 딸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열티 없는 국산 신 품종 무농약 재배단지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담양=차재희기자 jhw@

해남 김치정보화마을 ‘김장축제’

해남에서 오는 22일 ‘제 1회 김장 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김치정보화마을로 조성중인 북평면 동해리에서 ‘마당 너른 집 김장 담그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김장 기원제를 시작으로 김장 담기, 김장독 문기와 부대행사로 소망 실은 연날리기, 떡매치기, 두부 만들기, 고구마 구이, 김치 및 할품 요리 선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참가 신청요금은 어른 1만 원, 어린이 5천 원이며 김장재료 및 부재료를 선택해 원하는 물량의 김장을 직접 담을 수 있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는 전부 국내산으로 천연 조미료, 해수 절임 처리, 가공육수를 사용한다.

한편 김치정보화마을은 우리 전통사료 소망 실은 연날리기, 떡매치기, 김치 체험과 묵은지, 재래김치, 기능성 요리 선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기업 애로 현장서 해결

영암군 기업지원팀 운영

영암군이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삼호지방산단, 신북·군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기업현장 민원처리 지원팀을 구성했다.

건축과 세무, 환경, 상하수도 분야 등 2개 팀 10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은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기업 지원 시책, 세제 지원 및 정책설명 안내 등을 담당한다. 또 대불산단 내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달마가 광주에 온 까닭은? 기행, 우연, 귀면, 불교사학, 민들기, 민들기, 불교사학, 민들기

행운의 무보시 달마도 받아보세요.

일시 : 12월 3일~12월 5일 (3일간) 매일 선착순 100명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촌동 제일교회 1층 | 광주1동 700-101

신청서 접수

12월 3일(월) 오후 5시~10시

12월 4일(화) 오후 5시~10시

12월 5일(수) 오후 5시~10시

신청처: 제일교회 1층 | 문의: 0621527-5550